기본과제 2021-20

ULSAN
THE RISING CITY

울산시립미술관 일원 문화특화지역 조성방안 연구

권태목_연구행정지원실 연구위원

울산연구원
Ulsan Research Institute

권태목

일)오사카대 공학박사
울산연구원 연구행정지원실 연구기획팀장
chansaem@uri.re.kr

ULSAN RESEARCH INSTITUTE

울산연구원은
울산광역시의 경쟁력을 높이고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개발을 목적으로 2001년 설립된 市 출연 정책연구기관이다.
지역현안에 대한 열린 연구를 바탕으로 시민 등 정책고객의 요구를 정확히 예측하고 소통하는 현장중심의 연구자세로 과제개발과
학술활동에 매진하고 있으며 매년 연구보고서와 단행본, 정기간행물 등을 발간하고 있다.

기본과제 2021-20

울산시립미술관 일원 문화특화지역 조성방안 연구

| 연구책임 |

권태목_연구행정지원실 연구위원

기본과제 2021-20

울산시립미술관 일원 문화특화지역 조성방안 연구

연구책임 권태목_연구행정지원실 연구위원

발행인 임 진 혁

발행일 2021년

발행처 울산연구원
44720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중로 6
전화 052.283.7700
팩스 052.289.7227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의 견해로 울산광역시의 정책적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본 보고서는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전재나 복제를 금합니다.

발간사

울산광역시는 산업을 중심으로 도시 성장을 이루다보니 문화예술분야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광역시 승격 이후 이러한 분야들 간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올해는 울산시립미술관 개관이라는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울산시립미술관은 올해 12월 개관에 이르기까지 난관이 많았습니다. 처음 조성하고자 한 울산초등학교터에서 객사 유적이 발견되면서 현 위치로 이동하게 되는 등 그 과정이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원도심에 위치하게 된 울산시립미술관은 문화의 거리 등 기존의 문화적 요소가 많은 지역에 입지하여 시너지 효과가 분명히 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 또한 이러한 배경과 환경을 염두에 두고 더욱 계획적인 조성을 위한 방안 찾기에 고심했습니다.

연구과정에서 만난 많은 시민과 관계자, 여론 등을 통해서는 울산시립미술관 및 인접지역을 중심으로 울산의 특화지역이 조성되기를 희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보다 더욱 적극적인 사업과 다양한 프로그램이 시행되기를 희망하는 목소리도 많았습니다.

이에 본 연구를 바탕으로 더욱 내실 있는 종합계획이 수립되기를 바라며,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장기적인 차원에서 효율적인 지역관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본 연구가 울산광역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써 많은 부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며, 우리 연구원 또한 후속 연구 및 사업 기획에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끝으로 본 연구 수행에 여러 자문과 조언을 주신 전문가 분들과 자료 제공 및 협의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울산시 관계부서 및 담당자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1년 12월

울산연구원장 **임 진 혁**

요약

연구목적 및 필요성

○ 울산시립미술관은 2011년 건립 계획이 세워진 이후 건립 부지에 대한 변경, 시민공론화 과정 등을 거쳐 2019년 옛 북정공원 자리에 착공하였으며, 2021년 12월 개관을 앞두고 있음

○ 울산시립미술관 주변으로는 울산동헌이라는 울산 원도심을 대표하는 역사자원이 있고, 문화의 거리, 젊음의 거리, 고복수 거리 등이 조성되어 있는 등 울산을 대표하는 문화자원이 집적되어 있는 곳임

○ 따라서 본 연구는 울산시립미술관이 들어서게 되는 성남동(원도심) 일원의 문화자원을 파악하고 이를 통하여 상호 효율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연구 주요 내용

○ 이론적 고찰

- 문화적 요소간 연계에 관한 연구 정리
- 문화특화지역 조성과 관련된 연구 정리

○ 사례 및 현황분석

- 문화특화지역 조성 사례 조사
- 대상지 현황 조사 분석

○ 문화특화지역 조성에 대한 시민설문

- 특화지역 조성방향에 대한 설문

○ 과업의 결론 및 정책적 제언

- 과업의 결론 및 정책적 제언

정책제언

○ 시민들은 원도심 일원을 문화특화지역으로 조성하는 것에 대하여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인정하고 있으며, 복합적인 형태로 진행되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음

○ 이러한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정책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음

○ 첫째, 문화특화지역 조성을 위한 제도활용적인 측면에서는 규제 중심의 제도가 아닌 유도정책을 펼 수 있는 '지역특화발전특구'를 활용하는 것이 타당함

○ 둘째, 융합형 문화예술특화지역으로 조성될 필요가 있는데, 시민들은 특정분야에 편중되기보다는 다양한 문화가 어우러진 복합형태의 특화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음

○ 셋째, 종합적 계획 수립을 통하여 특화지역으로 조성되기를 희망하고 있는데, 문화예술적 측면에서의 소프트웨어 뿐만 아니라 물리적 환경 정비 및 상징물 등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계획 수립을 통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넷째, 다양한 사업발굴을 통하여 지역을 특화시킬 필요가 있는데, 침체된 문화예술산업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하여 현실 세계 뿐만 아니라 앞으로 펼쳐질 가상세계에 대한 선제적인 도전을 시행하여 울산을 넘어서 사업을 확장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종합적 조성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미래산업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세밀한 계획수립을 통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음

정책 활용실적 및 계획

○ 한글도시중구 지역특화발전특구 신청 사업에 반영

○ 울산시립미술관 개관 이후 원도심과 연계 사업추진시 근거자료로 활용

목 차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2
2. 연구 범위 및 연구내용 13
3. 연구 방법 15

Ⅱ 이론적 고찰
1. 문화특화지역이란 18
2. 문화특화지역 조성 관련 법제도 22

Ⅲ 국내 사례 및 지역 내 현황
1. 국내 사례 28
2. 지역 내 현황 30

Ⅳ 시민인식조사
1. 시민설문조사 42
2. 종사자 인터뷰 50

Ⅴ 문화특화지역 조성방향
1. 계획 조성의 방향 54
2. 전략 및 사업 55

Ⅵ 요약 및 정책제언 64

참고문헌 66
부록 68

표 목 차

[표 Ⅱ-1] 문화도시조성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22
[표 Ⅱ-2] 문화도시 및 문화마을 지원현황 23
[표 Ⅱ-3] 특화특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24
[표 Ⅱ-4] 지역특화발전특구 내 규제특례 현황 24
[표 Ⅱ-5]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현황 25
[표 Ⅲ-1] 진도 민속문화예술특구계획 사업 내용 29
[표 Ⅲ-2] 원도심 일원 소극장 현황 31
[표 Ⅲ-3] 원도심 일원 영화관 현황 31
[표 Ⅲ-4] 갤러리 현황 및 분포도 34
[표 Ⅲ-5] 화실 현황 및 분포도 34
[표 Ⅲ-6] 공연장 현황 및 분포도 35
[표 Ⅲ-7] 공연창작소 현황 및 분포도 35
[표 Ⅲ-8] 공예창작소 현황 및 분포도 36
[표 Ⅲ-9] 음악창작소 현황 및 분포도 37
[표 Ⅲ-10] 문학창작소 현황 및 분포도 37
[표 Ⅲ-11] 복합공간 현황 및 분포도 38
[표 Ⅲ-12] 기타 현황 및 분포도 38
[표 Ⅲ-13] 문화의 거리 육성 사업 참여 업체 현황 39
[표 Ⅳ-1] 원도심 지역에 대한 인식 45
[표 Ⅳ-2] 시립미술관 개관 이후의 원도심 변화 47
[표 Ⅳ-3] 문화예술지역으로 특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 48
[표 Ⅳ-4] 특화 분야 49
[표 Ⅳ-5] 문화의 거리 종사자 인터뷰 51

그림목차

[그림 Ⅰ-1] 울산시립도서관 건립부지(좌) 및 문화의 거리(우) 12

[그림 Ⅰ-2] 원도심 일원 14

[그림 Ⅲ-1] 진도 민속문화예술특구계획상 다양한 조감도 28

[그림 Ⅲ-2] 용산구 지역문화특구 사업위치도 30

[그림 Ⅲ-3] 원도심 내 소극장 외부모습 32

[그림 Ⅲ-4] 영화관 및 소극장 위치 33

[그림 Ⅲ-5] 문화예술업종 분포 현황 (문화의 거리 육성 사업참여 업체) 40

[그림 Ⅳ-1] 응답자 연령 43

[그림 Ⅳ-2] 응답자 거주지 43

[그림 Ⅳ-3] 응답자 직업 43

[그림 Ⅳ-4] 응답자 원도심 방문회수 44

[그림 Ⅳ-5] 가장 많다고 인식하는 문화예술업종 44

[그림 Ⅳ-6] 원도심 일원 문화예술특화지역으로의 가능성 45

[그림 Ⅳ-7] 원도심 일원에 대한 이미지 46

[그림 Ⅳ-8] 시립미술관 건립 인지 여부 47

[그림 Ⅳ-9] 원도심 일원을 문화예술 특화지역 조성 의견 48

[그림 Ⅳ-10] 특화 분야 49

[그림 Ⅴ-1] 문화특화지역 조성방향 55

[그림 Ⅴ-2] 문화의 거리(상)와 일본 센다이시 죠젠지 거리(하) 56

[그림 Ⅴ-3] 문화의 거리(상)와 오스트리아 잘츠브르크 게트라이데 거리(하) 57

[그림 Ⅴ-4] 문화의 거리 내 공연장(상)과 사례(하) 58

[그림 Ⅴ-5] 미술관영토확장사업 개념 59

[그림 Ⅴ-6] 가상 전시관 사례(상) 및 메타버스 공간 내 전시공간 사례(하) 60

[그림 Ⅴ-7] 개인 NFT 사례(상) 및 프로젝트팀 NFT 사례(하) 61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 범위 및 내용
3. 연구 방법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 울산시립미술관은 2011년 건립 계획이 세워진 이후 건립 부지에 대한 변경, 시민공론화 과정 등을 거쳐 2019년 옛 북정공원 자리에 착공하였으며, 2021년 12월 개관을 앞두고 있음

○ 울산시립미술관은 부지면적 6,182㎡, 지하3층, 지상2층 규모로 건립되며 연면적은 12,770㎡로 사업비는 약 677억원임

○ 울산시립미술관 주변으로는 울산동헌이라는 울산 원도심을 대표하는 역사자원이 있고, 문화의 거리, 젊음의 거리, 고복수 거리 등이 조성되어 있는 등 울산을 대표하는 문화자원이 집적되어 있는 곳임

[그림 Ⅰ-1] 울산시립도서관 건립부지(좌) 및 문화의 거리(우)

○ 특히 문화의 거리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조성된 것으로서 인도폭을 넓혀 걷기 편한 가로를 만들고 일방통행으로 조성하여 문화이벤트가가능하도록 조성한 곳으로 울산을 대표하는 문화상징거리임

○ 이와 더불어 문화의 거리 주변으로는 다수의 갤러리와 공연장 등이 입지하고 있어 이러한 문화자원과 시립미술관이 연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임

2) 연구 목적

○ 따라서 본 연구는 울산시립미술관이 들어서게 되는 성남동(원도심) 일원의 문화자원을 파악하고 이를 통하여 상호 효율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 또한 이러한 지역을 하나의 문화특화지역으로 인식할 수 있는 문화적 대표성을 검토하고, 이를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2. 연구 범위 및 연구내용

1) 연구 범위

○ 공간적 범위 : 중구 원도심 일원(성남동, 옥교동 일원)

○ 내용적 범위

- 울산교 배달의 다리 운영 현황 및 문제점 분석
- 지역내 자원 특성 조사 분석
- 타시도 문화특화지역 조성 사례
- 문화특화지역 조성방향에 대한 설문조사
- 문화특화지역 조성방안 제시

2) 연구 주요 내용

○ 이론적 고찰

- 문화적 요소간 연계에 관한 연구 정리
- 문화특화지역 조성과 관련된 연구 정리

○ 사례 및 현황분석

- 문화특화지역 조성 사례 조사
- 대상지 현황 조사 분석

○ 문화특화지역 조성에 대한 시민설문

- 특화지역 조성방향에 대한 설문

○ 과업의 결론 및 정책적 제언

- 과업의 결론
- 정책적 제언

[그림 Ⅰ-2] 원도심 일원

3. 연구 방법

○ 타시도 사례 및 문헌조사를 시행하고, 관련 최신 제도, 지침, 정책 사업 분석 등을 병행

○ 실질적인 이용자인 시민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시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조성방향을 도출하고자 함

○ 연구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 전문가를 중심으로 세미나, 지역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 및 반영함

Ⅱ
이론적 고찰

1. 문화특화지역이란
2. 문화특화지역 조성 관련 법제도석

Ⅱ. 이론적 고찰

1. 문화특화지역이란

○ 문화특화지역의 개념에 대해서는 라도삼(2010)의 연구에 잘 표현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음. 문화특화지역이란 특정한 문화적 요소가 지역에 정체하며 그 지역의 이미지를 지배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으며, 문화적 요소란 미학적이고 기호적인 것을 포함하면서 지역을 형성하고 있는 분위기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지역을 형성하는 많은 요소 가운데, 특정 문화적 요소가 다른 형성 요소를 압도하는 지역을 문화특화지역이라고 할 수 있음.

○ 또한 문화특화지역의 유형을 '예술자원 밀집형', '문화적 경관형', '선도적 문화활동형' 3개로 제시하였는데 그 특징은 아래와 같음

① 예술자원 밀집형

○ 미술관, 박물관, 공연장이나 갤러리 등의 예술관련 시설이나 업소 등이 밀집하여 그 지역을 지배하고, 그 자원을 바탕으로 하여 유사한 관련 활동을 집중하는 유형인데, 대표적으로 인사동이나 대학로, 청담동, 삼청동, 서초동 악기상가 등이라고 할 수 있고, 이들 지역은 특정한 예술자원을 바탕으로 하여 지역을 상징화하고, 관련 활동을 밀집시키는 경향이 있다고 함

② 문화적 경관형

○ 예술과 관련된 시설이나 업소 등은 드물지만 독특한 분위기를 형성하는 경관으로 그 지역

만의 고유성을 창출하는 유형으로서 한남동이나 압구정동 도산공원 주변 등이 대표적인 공간으로 거론하였으며, 주로 잘 디자인된 건물이나 가로경관이 주요한 경관 요소로 작용하며 이를 바탕으로 문화적 소비와 기호적 활동 등을 선호하는 다수의 계층을 흡입하는게 특징이라고 언급함

③ 선도적 문화활동형

○ 다른 지역과 다르게 다양성을 포괄하는 개방적인 문화를 형성하여 다양한 문화를 잉태하거나 선도적인 문화성으로 현대성을 갖춘 유형으로 대표할 수 있는데, 홍대나 청담동 등이 대표적 사례이고, 이들 지역은 독자적인 문화양식을 활용하여 지역을 기호화함으로써 다양한 유형의 활동을 포섭하거나 새롭게 창출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1)]

○ 이와같이 라도삼은 예술의 관점에서 문화특화지역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지만, 보여지는 부분에 있어서 예술이라는 것이 중요하고 큰 역할을 하는 것은 동의하지만, 예술적인 것이 문화특화지역의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즉, 그 지역이 오래동안 형성해온 전통적 관점에서의 문화재도 문화특화지역의 한 부분으로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음에도 역사자원형을 배제한 채 문화특화지역을 구분한 것은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

○ 문화·예술의 거리 개념에 관한 연구로는 양우창(2009)의 연구가 있는데, 다음과 같이 정의를 내리고 있음

○ 문화·예술의 거리는 그 지역 주민들에게 문화향수를 불러일으키고 심미적, 심리적으로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가로경관 등의 물리적인 시설이라는 시각에서 벗어나 문화·예술적으로 가치를 내재하는 다양한 문화예술의 이미지와 관련 프로그램이 녹아들어가 있는 거리가 되어야 함

○ 이러한 의미에서 정의를 내려보면 문화예술의 거리란 매력적인 문화적인 요소가 상시적으로 드러나는 특징을 가진 거리로서 방문객들에게 휴식과 자아실현, 문화체험, 볼거리, 먹거리 등의 요소들을 제공하고 경험할 수 있는 거리를 의미함

○ 또한 문화공간과 가로공간의 복합적인 개념인 문화와 예술이 공존하는 도시의 거리로서 시민들과 예술가가 함께 어울려 문화적인 행위를 공유하고 새로운 문화를 함께 창조하며, 편안하

1) 라도삼, 2010, 문화특화지역 형성요인 및 실태에 관한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면서도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거리이며, 한 지역의 개성이 형성되어 있어 누구든지 기억할 수 있는 향수가 남아 있고, 재방문하면 언제나 친근하게 맞이 해주는 향수를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도 정의내릴 수 있음

○ 문화·예술로 특화된 거리는 도시 내에서 중요한 요소로 인식될 수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집적하여 상권을 형성하고 거리를 특성화하고 새로운 거리문화를 형성하는데, 금융 중심의 거리나 벤처기업과 중소기업 등이 많은 기업중심의 거리나 화랑·화방·표구사·소규모 공연장 등이 많은 예술이 중심인 거리, 길거리 음식·전통음식·퓨전음식 등이 많은 음식이 중심인 거리 등 다양한 형식의 거리가 있으며, 이러한 거리의 성격은 일반시민이나 방문객들에게 구체적인 방문목적을 제공하기도 함

○ 또한 도시에는 지역 주민들에게 익숙하며 지역 내외의 예술가가 드나들고, 때로는 각종 축제나 이벤트가 벌어지는 공간이 있는데, 이런 거리에는 일반상가나 문화예술 관련 업종 및 미술관도 있고, 각종 볼거리와 먹거리가 있어 사람들이 자주 왕래함

○ 이처럼 도시 내의 특정 거리에 문화와 예술적 행위들이 행해질 때, 우리는 문화예술의 거리라고 하며, 이런 곳은 그 도시가 가지고 있는 개성이나 성격 또는 문화적 정체성을 드러내는데, 일명 '예술의 거리', '문화의 거리', '문화 예술의 거리' 등으로 거리의 성격을 느낄 수 있는 형태로 명명함

○ 일반적으로 문화예술의 거리로 통칭하는 사례가 많고 '문화의 거리'는 특정한 지역에서 개별적인 문화요소를 선형적으로 연결하여 표현한 문화·공간적 의미를 가지고 있고, 도시 공간을 '가로' 뿐만 아니라 가로를 포함한 인접한 지역 전체를 동일한 속성을 지닌 차원에서 접근한 문화지구보다는 협소하다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음

○ 즉 지역문화란 지방자치단체의 경영이념이나 특산품, 브랜드, 전통과 역사, 심벌마크나 로고, 유니폼, 지역 이미지, 지역 상징색, 광고나 선전, 금기사항, 에피소드, 주민들의 태도 등과 같은 것에서 나타남

○ 한 사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사회의 문화를 보아야 하는 것처럼 지역에 대한 이해도 그 지역이 갖는 지역문화를 통하여 증진될 수 있음

○ 지역문화의 의미는 공동체 내적인 의미와 공동체 외부에 나타나는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 공동체 내적인 측면에서의 지역문화는 조직 구성원의 공통된 가치관을 뜻하며, 지역문화의 외적 의의는 지역문화가 그 공동체의 이미지를 결정한다는 것을 의미함[2)]

2) 양우창 (2009). 문화,예술의 거리 업종 구성에 관한 연구.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15(3), 195-204

○ 최효승(2009)은 문화거리 조성을 위한 보행환경의 개선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접근하여야 한다고 하였음[3)]

○ 보행도로환경 개선 변인 중 쾌적성, 접근편리성 등 변인이 상업환경 개선에 유의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변인의 상대적 영향력은 쾌적성, 접근편리성 변인에 비해 상업환경 개선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보행도로환경 개선을 느낄 수 있는 요소는 접근편리성과 인도와 가로환경의 쾌적성이 상업 환경의 개선에 중요한 예측요인이라고 주장하였음

○ 그는 또한 상업환경을 개선하고, 방문객을 증가시키면서도 매출액을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을 쾌적성, 접근편리성, 상징성, 접근장애요소의 개선을 언급하였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음

○ 첫째, 접근성의 개선을 위하여 이용자의 주차공간의 확보가 가장 필요함

○ 둘째, 거리의 쾌적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포장제를 통일하고 인도의 포장제 구분을 통한 방문객의 통행편리성 확보, 불법 주차 차량의 관리를 하여 방문객 뿐만 아니라 상인에게도 거리 이용의 편리성을 제고하여야 함

○ 셋째, 거리의 상징성 확보를 위하여 거리조성을 위한 계획 단계에서부터 거리의 테마와 정체성을 명확히 확립하여 사업의 추진이 필요함

○ 넷째, 차량감소 및 불법주차감소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가로환경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야 함

○ 다섯째, 안내표지판 설치, 홍보 및 이벤트 행사 개최, 편의시설 확보 등을 통하여 지역의 이미지 제고를 하여야 함

3) 최효승, 김혜영 (2009). 문화거리조성을 위한 보행환경개선사업이 상업환경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9(8), 237-247

2. 문화특화지역 조성 관련 법제도

1) 문화도시

○ 지역문화진흥법에는 지역의 문화진흥기반 구축을 위한 다양한 내용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구체성을 가진 대표적인 것이 '문화도시' 및 '문화지구'임

○ 우선 '문화도시'의 경우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으로서 지역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문화예술 · 문화산업 · 관광 · 전통 · 역사 · 영상 등 분야별로 문화도시를 지정할 수 있음

○ 시 · 도지사 및 시장 · 군수 · 자치구의 구청장 등은 해당 지역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자원 및 예술성 등 문화도시로서의 기초여건을 토대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문화도시 지정을 신청할 수 있음

[표 Ⅱ-1] 문화도시조성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1. 문화도시 조성의 기본 방향 2. 문화도시 지정 분야별 특성화 계획 3.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4. 문화도시 조성사업 등에 필요한 투자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이러한 것을 기본으로 하여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주요내용 : 도시 및 지역 자체가 고유 브랜드로 발전할 수 있도록 특색 있는 지역문화 프로그램 중심의 문화도시 및 문화마을 조성 지원
- 지원방향 : 시설건립, 경관조성 등의 인프라 구축 지원 최소화 및 지역문화활성화 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 중심의 사업 지원 강화
- 지원조건 : 지자체 경상보조 (국비 40%, 지방비 60%)
- 사업기간 : 5년

- 사업유형 :

• 문화도시형 : 문화적 자산이 풍부하고 중장기 문화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창조도시사업을 추진 중인 시군(5년)

• 문화마을형 : 주민협의체를 통한 문화적 사회활동이 활발하거나 잠재적 문화역량이 높은 마을 (3년)

○ 지정현황을 보면 다음 표와 같음

[표 Ⅱ-2] 문화도시 및 문화마을 지원현황

구분	시작 연도	종료 연도	대 상	
			개소 수	지 역
도시	2014	2018	1	남원
	2015	2019	6	대구 , 천안 , 군산 , 여수 , 서귀포 , 구미
	2016	2020	10	인천부평 , 부천 , 가평 , 원주 , 청주 , 서산 , 나주 , 담양 , 포항 , 제주
	2017	2021	3	익산 , 광양 , 울산 중구
	2018	2022	7	춘천 , 수원 , 창원 , 김해 , 순천 , 완주 , 정읍
	2019	2023	9	도봉구 , 시흥 , 속초 , 홍성군 , 안동 , 영주 , 영천 , 칠곡군 , 밀양
	계		36	
문화 마을	2014	2016	2	공주 , 부여
	2015	2017	11	대구 중구 , 부산 수영 , 성남 , 양평 , 당진 , 예산 , 홍성 , 여수 , 양산 , 제주 , 세종
	2016	2018	16	해운대구 , 대구 달성군 , 수원시 (2), 파주 , 하동 , 영동 , 진안 , 영천 , 문경 , 고령 , 성주 , 울산 , 강릉 , 평창 , 영양
	2017	2019	5	시흥 , 포천 , 대구 중구 , 충주 , 해남
	2018	2020	8	속초 , 안산 , 경북 영덕군 , 대구 남구 , 임실 , 장수 , 제주 본청 , 충남 서천군
	2019	2021	3	포천 , 인제군 , 문경
	계		45	

*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20,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주요현황

2) 지역특화발전특구

○ 지역특화발전특구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근거한 것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을 의미함

○ 기초지자체장인 시장/군구/구청장이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을 수립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함

[표 Ⅱ-3] 특화특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1. 특화사업 추진으로 인한 난개발 또는 환경오염 등 부작용의 발생 가능성
2. 특화사업 추진으로 인한 주민 간 갈등의 발생 가능성
3. 재원확보계획
4. 그 밖에 지역특성이나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의 운영취지

○ 공모와 관련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주요내용 : 지역특성에 맞게 선택적으로 규제특례를 적용함으로써 지역 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지원절차 : 시군구 기초지자체가 특구계획을 수립 후 중기부에 신청하면, 부처협의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 지원효과 : 지역특구 지정을 통해 58개 개별법에서 정한 128개 규제특례를 '지역특구법'에 따라 특구 내 적용 가능
- 사업기간 : 5년

[표 Ⅱ-4] 지역특화발전특구 내 규제특례 현황

구 분	적용 특례	구 분	적용 특례
일반 (62 개)	옥외광고물 표시 · 설치	토지 이용 (53 개)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도로통행 제한		용도지역 · 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농지의 위탁경영 / 임대 · 사용		농업진흥지역 해제
	특허출원에 대한 우선심사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도로점용 허용		지구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외국인 체류기간 상한 연장	이양 (13 개)	식품 표시기준 완화
	외국인 교원 및 강사임용		체육시설업 사업계획 승인 완화

○ 특구 지정에 따른 규제특례 현황은 다음 표와 같음

○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현황을 보면, 총 217개의 특구가 지정된 가운데, 23개의 특구가 해제 후 통합되어 현재는 총 194개의 특구가 지정 및 운영되고 있음

○ 울산도 현재 2개의 특구가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음

[Ⅱ-5]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현황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합계
특구(개)	13	7	4	3	3	1	2	19	
구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94
특구(개)	14	16	18	14	34	28	15	3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2021, 제50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심의 결과 자료

Ⅲ
국내 사례 및 현황

1. 국내 사례
2. 지역 내 현황

Ⅲ. 국내 사례 및 지역 내 현황

1. 국내 사례

1) 진도 민속문화예술특구

○ 진도민속문화예술특구는 전국 최초의 민속문화예술 특구로 2013년 지정되었음

○ 5년간 310억원의 투자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에 따른 규제완화와 인센티브 혜택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 2013년~2017년 동안 진도민속문화 클러스터 거점화사업과 진도아리랑 글러볼 프런티어 사업, 진도민속문화 산업화 사업, 락&휴 민속문화공감 프로젝트사업 등 4개의 추진과제에 총 11개 특화사업을 추진하였음

[그림 Ⅲ-1] 진도 민속문화예술특구계획상 다양한 조감도

○ 특구 지정에 따라서 진도군은 특구 내 생산가공식품 등에 대한 품질보증 및 브랜드 확보를 위한 별도의 표시기준, 진도울금의 지리적 표시등록 우선 심사, 진돗개테마파크 운영 조기 추진, 특허출원 우선 심사 등 각종 규제완화 혜택을 받았음

○ 진도 민속문화예술특구계획의 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음

[표 Ⅲ-1] 진도 민속문화예술특구계획 사업 내용

추진과제	특화사업	추진과제	특화사업
진도 민속문화 클러스터 거점화 사업	진도예술영재 교육원 건립	樂 & 休 민속문화 공감 프로젝트 사업	진도 군립민속예술단 운영
	신비의 바닷길 체험관 건립		민속관광 프로그램 운영
	아리랑 거리 조성		
	남종화 미술관 리모델링		
진도아리랑 글로벌 프런티어 사업	진도아리랑 브랜드개발사업	진도 민속문화산업화 사업	민속문화체험 및 교육 활성화사업
	아리랑 콘텐츠 발굴 및 구축		진도개 테마파크 운영
			진도 울금 특산품 개발사업

2) 용산구 역사문화 르네상스 특구

○ 용산구는 2021년 '역사문화 르네상스 사업'이라는 주제로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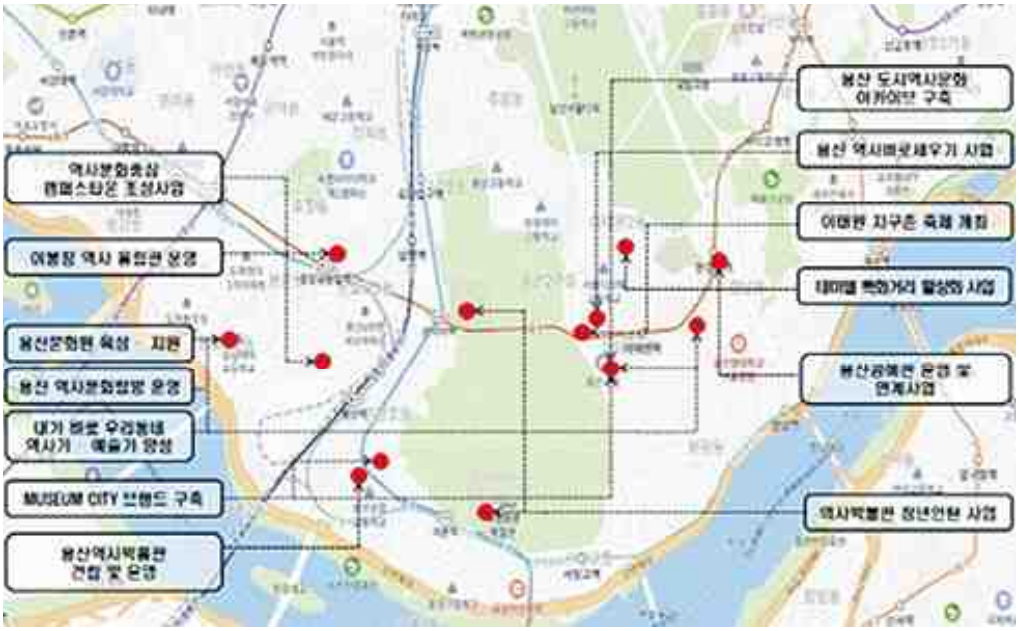
○ 특구 지정에 따라 역사문화 콘텐츠 확장·연계, 삶속에 스며드는 역사문화, 역사문화 일자리 발굴, 도심역사 거점 구축 등 4개 특화사업을 진행하며 2024년까지 총 510억 규모의 투자가 이뤄질 예정임

○ 삶 속에 스며드는 역사문화사업은 '미래문화 디지털화(아카이브)', '근현대사 체험 프로그램', '용산문화원 육성·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음

○ 특히 역사문화 콘텐츠 확장·연계사업으로는 '테마별 특화거리 조성'을 진행 중에 있는데, 이태원 세계음식거리, 베트남 퀴논길, 한남동 카페거리가 있으며, 앞으로 서빙고로 일대 박물관 특화거리를 새롭게 조성할 계획임

○ 도심역사 거점 구축에는 옛 용산철도병원 건물 리노베이션, 지역사 박물관 용도 변경 등을 진행하여 물리적인 것과 지역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요소들을 적극 활용하는 계획으로 수립하였음

[그림 Ⅲ-2] 용산구 지역문화특구 사업위치도



2. 지역 내 현황

1) 문화예술업종 현황

(1) 소극장 및 영화관

○ 본 연구는 시립미술관 건립 부지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문화예술업종의 현황은 원도심 지역 내로 한정하여 조사함

○ 공공데이터포털 상 울산광역시 문화시설현황 중 원도심 일원의 자원을 보면 소극장 8개가 제시되어 있음

○ 이들은 대부분 현재의 문화의 거리 근처에 배치되어 있으며 집적된 형태를 보여주고 있음

[표 Ⅲ-2] 원도심 일원 소극장 현황

명 칭	주 소
'폼 '	울산광역시 중구 장춘로 110
토마토소극장	울산광역시 중구 장춘로 114
소극장 푸른가시	울산광역시 중구 문화의거리 24
피가로 아트홀	울산광역시 중구 중앙길 92
피에로소극장	울산광역시 중구 중앙 1 길 7, 3 층
사브냇바네아	울산광역시 중구 문화의거리 14, 지하 1 층
도미넌트악단 소공연장 &스튜디오	울산광역시 중구 새즈믄해거리 48, 지하 1 층
플러그인	울산광역시 중구 문화의거리 6, 지하 1 층

자료: 공공데이터포털, 2020, 울산광역시 문화시설현황 중 발췌

○ 이와 더불어 원도심 내 영화관은 현재 2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메가박스 울산'과 '롯데시네마 울산성남점'임

[표 Ⅲ-3] 원도심 일원 영화관 현황

명 칭	주 소
메가박스 울산	울산광역시 중구 젊음의거리 73
롯데시네마 울산성남	울산광역시 중구 젊음의 2 거리 33

[그림 Ⅲ-3] 원도심 내 소극장 외부모습

[소극장 '폼']

[소극장 푸른가시]

[피에로 소극장]

[도미넌트악단 소공연장]

[토마토 소극장]

[피가로 아트홀]

[사브낫바네아]

[플러그인]

○ 소극장은 대체로 울산시립미술관과 아주 가까운 거리에 밀집하고 있으며, 영화관은 태화강과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음

○ 학성로를 중심으로 북쪽으로는 소극장, 남쪽으로는 영화관이 입지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임

[그림 Ⅲ-4] 영화관 및 소극장 위치

(2) 문화의 거리 육성 사업 참가 문화시설

○ 원도심 일원에는 문화 예술 업종의 경우 문화의거리 육성 사업을 통하여 임대료 등 일정부분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현재 운영 중인 업종의 현황을 파악해보면 약 77개의 시설이 현재 영업을 하고 음

○ 갤러리

• 갤러리는 총 11개 업체가 영업 중에 있으며, 분포 현황은 다음과 같음

[표 Ⅲ-4] 갤러리 현황 및 분포도

연번	상 호	사업장	분 포 도
1	갤러리아리오소	새즈믄해거리 19(성남동)	
2	갤러리201	중앙길171(옥교동)	
3	갤러리 라온	문화의거리41(성남동)	
4	가다갤러리	문화의거리 31(성남동)	
5	혜암전각갤러리	문화의거리 41(성남동)	
6	갤러리 창작공간(갤러리유)	문화의거리 34(옥교동)	
7	대안공간 42	중앙길 158(옥교동)	
8	아트스페이스그룹	중앙길 158(옥교동)	
9	강상구 갤러리	문화의거리 41(성남동)	
10	아드리아아트센터	중앙길 128	
11	월갤러리	중앙길 171, 1층	

○ 화실

• 화실은 총 11개 업체가 영업 중에 있으며, 분포 현황은 다음과 같음

[표 Ⅲ-5] 화실 현황 및 분포도

연번	상 호	사업장	분 포 도
1	김광석화 실수채화	새즈믄해거리 24(성남동)	
2	스튜디오 배	새즈믄해거리 49	
3	그림그리는곳	중앙2길 18	
4	미술창작공간 BE MORE (비모어)	새즈믄해거리 35, 2층	
5	감정적글씨공장	중앙1길 10-2, 3층	
6	대안공간ㅁ	새즈믄해거리 35	
7	그림을 기억해	옥골샘7길 8	
8	아틀리에 방스	새즈믄해거리 49	
9	창작공간 그림숲	중앙길 158	
10	화실(울협산회캐)리커쳐	중앙길 137(성남동)	
11	월갤러리	중앙길 171, 1층	

○ 공연장

• 공연장은 총 6개 업체가 영업 중에 있으며, 분포 현황은 다음과 같음

[표 Ⅲ-6] 공연장 현황 및 분포도

연번	상 호	사업장	분 포 도
1	토마토소극장	장춘로114(성남동)	
2	극단푸른가시	문화의거리24(옥교동)	
3	도미넌트악단 소공연장&스튜디오	새즈믄해거리 48(성남동)	
4	소극장 품	장춘로 110(성남동)	
5	플러그 인	문화의거리 6(옥교동)	
6	예술더하기예술	중앙길 120, 3층	

○ 공연창작소

• 공연창작소는 총 12개 업체가 영업 중에 있으며, 분포 현황은 다음과 같음

[표 Ⅲ-7] 공연창작소 현황 및 분포도

연번	상 호	사업장	분 포 도
1	색소폰K뮤직	문화의거리 26(옥교동)	
2	사단법인둥 지10대들의	중앙길 142(성남동)	
3	脈(맥) 국악연구소	문화의거리 12(옥교동)	
4	국악파실래내소악 단	중앙길 133(성남동)	
5	CK Studio	문화의거리 8(옥교동)	
6	사운스플드튜러(더디그 오드인)러 머	문화의거리 12(옥교동)	
7	문화예노술래스숲튜디오	새즈믄해거리 27(성남동)	
8	포시크루	중앙길 133(성남동)	
9	태화루예술단	중앙길 166, 3층	
10	울산타악노리울	문화의거리 39	
11	재즈공감	새즈믄해거리 50(성남동)	
12	DKBASSMUSIC	문화의거리 16	

○ 공예창작소

• 공예창작소는 총 20개 업체가 영업 중에 있으며, 분포 현황은 다음과 같음

[Ⅲ-8] 공예창작소 현황 및 분포도

연번	상 호	사업장	분 포 도
1	죽림산방	새즈믄해거리 50(성남동)	
2	가죽공방 La Mano	문화의거리 31(성남동)	
3	이규웅 대금공방	문화의거리 12(옥교동)	
4	Vida : 그림이 있는 가죽공방	새즈믄해거리 25(성남동)	
5	만듦handmade gallery	중앙길 166, 2층(옥교동)	
6	고정민예사	중앙1길 20(성남동)	
7	전통판각예술원	새즈믄해거리 1(성남동)	
8	윤도예공방	장춘로 102	
9	빛담	새즈믄해거리 42(성남동)	
10	갓구은	장춘로 118, 4층	
11	꽃향	중앙1길 10-2	
12	전통공예 수수	장춘로 128, 2층	
13	봉언니한복집	중앙길 133(성남동)	
14	나무발전소	새즈믄해거리 44	
15	아이보스타	옥골샘7길 3	
16	핑크달달	옥골샘7길 6, 1층	
17	김태희 닥종이인형	옥골샘7길 3	
18	프롬민트	중앙길 170	
19	여우별랩	장춘로 116	
20	라빔바	중앙1길 7	

○ 음악창작소

• 음악창작소는 총 3개 업체가 영업 중에 있으며, 분포 현황은 다음과 같음

[표 Ⅲ-9] 음악창작소 현황 및 분포도

연번	상 호	사업장	분 포 도
1	김소영 민족소리원	문화의거리 31(성남동)	
2	알로하뮤직스튜디오	문화의거리 34	
3	이선숙판소리연구소	문화의거리 20,3층	

○ 문학창작소

• 문학창작소는 총 3개 업체가 영업 중에 있으며, 분포 현황은 다음과 같음

[표 Ⅲ-10] 문학창작소 현황 및 분포도

연번	상 호	사업장	분 포 도
1	울산문학창작공간	새즈믄해거리 25(성남동)	
2	울산미학연구소 봄	새즈믄해거리 27(성남동)	
3	울산문학공간 글밭	울산 중구 중앙길 142	

○ 복합공간

• 복합공간은 총 11개 업체가 영업 중에 있으며, 분포 현황은 다음과 같음

[표 Ⅲ-11] 복합공간 현황 및 분포도

연번	상 호	사업장	분 포 도
1	로얄앵커	문화의거리9(성남동)	
2	㈜뉴미들클래스	중앙길 107-1(성남동)	
3	아트그라운드 hQ	옥골샘7길 6, 2층(옥교동)	
4	박빙 아트스페이스	학성로 101(옥교동)	
5	Art-Base 기지 303	새즈믄해거리 27(성남동)	
6	마음공작소 그래도 괜찮아요	문화의거리 20(옥교동)	
7	문화예술공작소 공작새	문화의거리 7, 2층	
8	애령	새즈믄해거리 21	
9	아트스페이스 민	문화의거리 31, 3층	
10	어라운드 울산	문화의거리 33	
11	프리템포	중앙길 162	

○ 기타

• 기타공간은 총 1개 업체가 영업 중에 있으며, 분포 현황은 다음과 같음

[표 Ⅲ-12] 기타 현황 및 분포도

연번	상 호	사업장	분 포 도
1	차생활의 미학	문화의거리19(성남동)	

○ 이상과 같이 총 9개 분야(기타 포함)에 77개의 업종이 영업을 하고 있으며, 이 중 공예창작소가 20곳(26.0%)으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공연창작, 갤러리 순임

○ 시립미술관과 가까운 곳에 밀집된 것을 알 수 있으며, 문화의 거리 육성사업의 지원 기준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 집적되어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표 Ⅲ-13] 문화의 거리 육성 사업 참여 업체 현황

업 종	개 수	비 율
갤러리	11	14.3%
화실	10	13.0%
공연장	6	7.8%
공연창작	12	15.6%
공예창작	20	26.0%
음악창작	3	3.9%
문학창작	3	3.9%
복합공간	11	14.3%
기타	1	1.3%
총합계	77	100.0%

자료 : 중구청 내부자료(2021), 업체 현황은 지원이 종료된 업체 포함이며, 현재 영업 중인 곳임

[그림 Ⅲ-5] 문화예술업종 분포 현황 (문화의 거리 육성 사업참여 업체)

Ⅳ
시민인식조사

1. 시민설문조사
2. 종사자 인터뷰

Ⅳ. 시민인식조사

1. 시민설문조사

1) 설문 및 응답자 개요

□ 설문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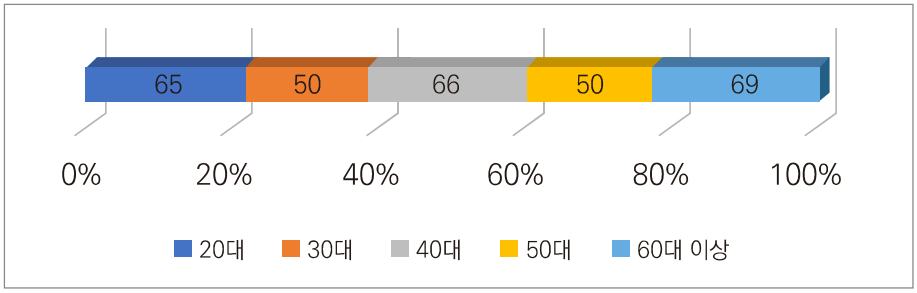
○ 시민들이 원도심의 변화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설문조사개요는 다음과 같음

- 대　상 : 원도심 방문객
- 인　원 : 300명
- 설문방법 : 대면조사
- 설문시기 : 2021.06.14.~2021.06.24.

□ 응답자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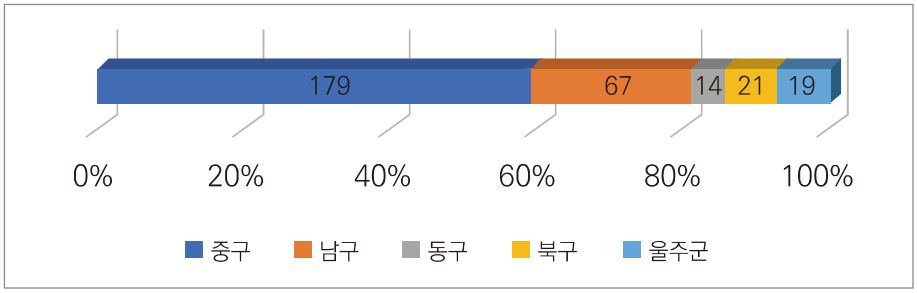
○ 응답자의 연령은 20대 이상으로 전 연령층 고르게 분배하여 설문을 실시하였음

[그림 Ⅳ-1] 응답자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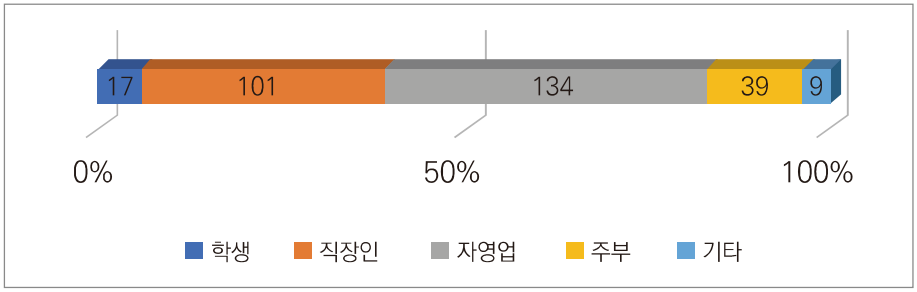
○ 응답자 거주지는 원도심 방문자를 중심으로 하였기에 중구 거주자가 179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남구 순임

[그림 Ⅳ-2] 응답자 거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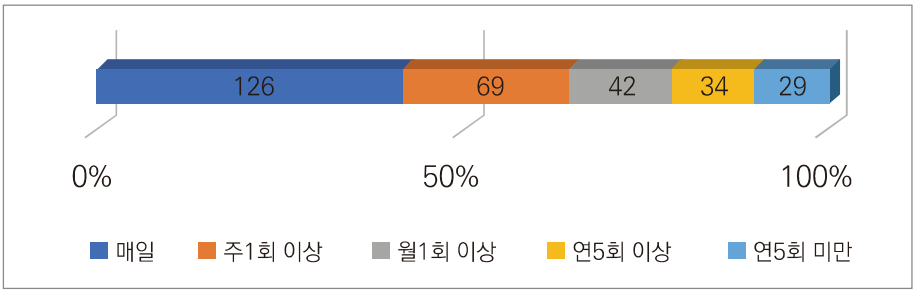
○ 직업은 자영업(134명)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직장인(101명), 주부(39명), 학생(17명) 순으로 나타났음

[그림 Ⅳ-3] 응답자 직업



○ 원도심 방문회수는 매일이 126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연 5회 미만은 29명에 지나지 않아, 대체로 원도심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 것으로 추정됨

그림 Ⅳ-4] 응답자 원도심 방문회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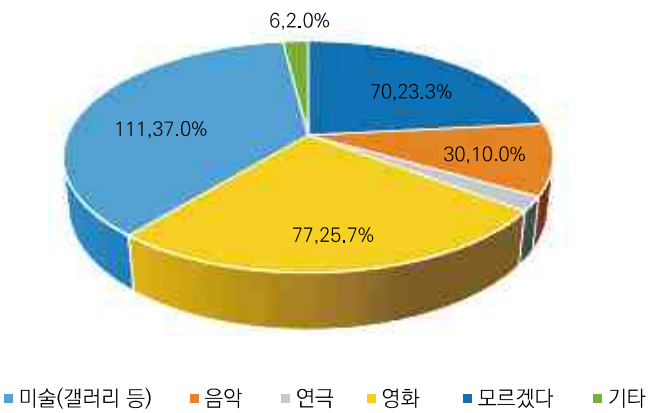
2) 원도심(성남동 일원)에 대한 인식

○ 우선 원도심에 대한 인식을 알고 위해서 원도심 일원에 가장 많은 문화예술업종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영화가 26.0%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미술이 23.3%로 나타났음

○ 실제로 영화관은 단 2개소 뿐이지만, 그 자체의 규모와 파급력이 크기 때문인지 사람들은 영화관이 많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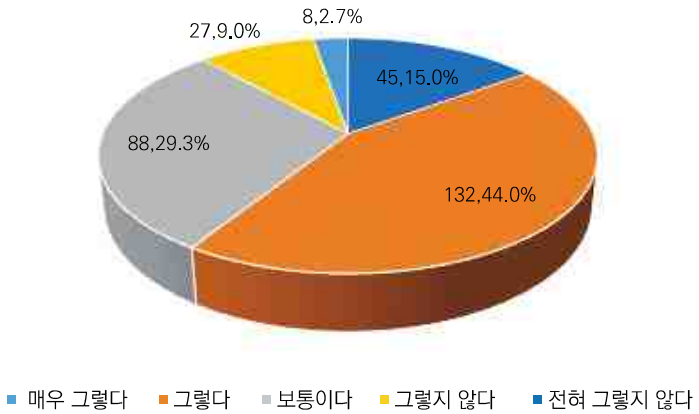
○ 또한 응답자의 37%는 성남동 일원에 문화예술업종이 있는지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그림 Ⅳ-5] 가장 많다고 인식하는 문화예술업종



○ 다음으로 원도심 일원을 울산을 대표하는 문화예술특화지역으로 조성하는 것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그렇다”가 44.0%, “매우 그렇다”가 15.0%로 긍정적인 응답이 59.0%로 나타나, 시민들도 이 지역을 문화예술로 특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그림 Ⅳ-6] 원도심 일원 문화예술특화지역으로의 가능성



○ 다음으로 원도심 일원은 어떠한 곳으로 인식하고 있는가를 알기 위해 다음의 문항에 대하여 5점 척도로 질문한 결과 대체로 ‘일반적인 상업시설이 집적한 원도심 지역이다’가 3.7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문화시설과 상업시설이 잘 조화된 공간이다’가 3.16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음

○ 이러한 결과를 보면 문화요소가 있는 것은 인지하지만 문화공간으로서의 인식은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됨

[표 Ⅳ-1] 원도심 지역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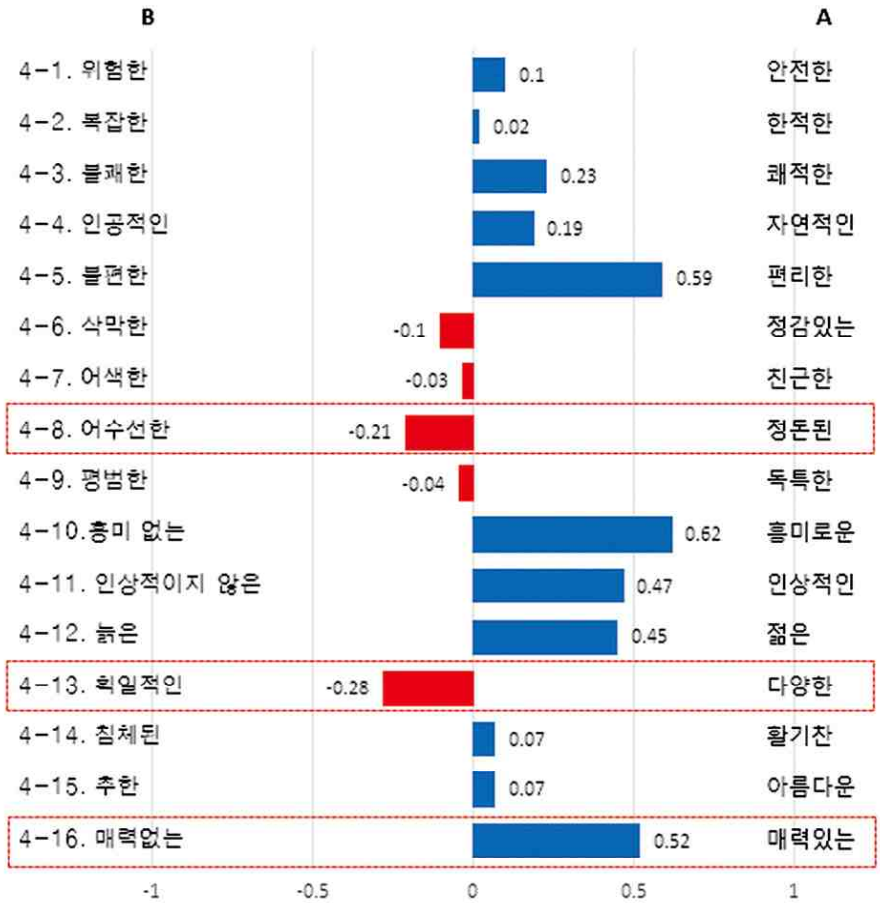
구 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평균 (5점 척도)
1-1. 일반적인 상업시설이 집적한 원도심 지역이다	53	135	83	26	3	3.7
1-2. 울산 내에서 문화공간으로서의 대표성이 있다	45	109	86	53	7	3.44
1-3. 현재 문화적으로 상품성이 있는 공간이다	44	100	95	54	7	3.4
1-4. 문화시설과 상업시설이 잘 조화된 공간이다	35	73	109	72	11	3.16

○ 다음으로 원도심 일원에 대한 이미지는 어떠한지 알기 위하여 대칭되는 형용사를 사용하여 이미지 정도를 파악해 보았음

○ 대체로 좋은 이미지가 많았으나,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았던 것을 보면, '어수선한(-0.21)', '획일적인(-0.28)' 것에 대한 것이었으며, 긍정적 이미지와 조합해 보면, 편리하고 매력있으나 획일적이고 정리가 안된 어수선한 느낌이다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음

○ 이는 눈에 보이는 외관에 대한 이미지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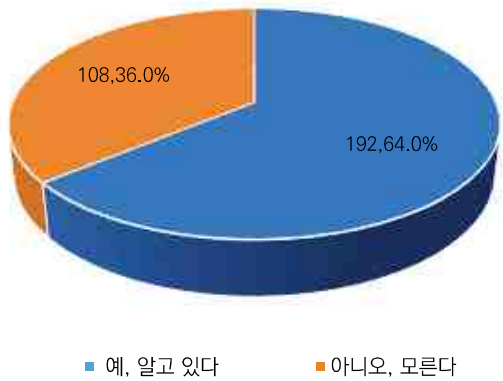
[그림 Ⅳ-7] 원도심 일원에 대한 이미지



3) 원도심(성남동 일원)에 대한 발전방향

○ 우선 시립미술관이 조성되고 있는 것에 대한 인지여부를 조사하였는데, 응답자의 64.0%가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그림 Ⅳ-8] 시립미술관 건립 인지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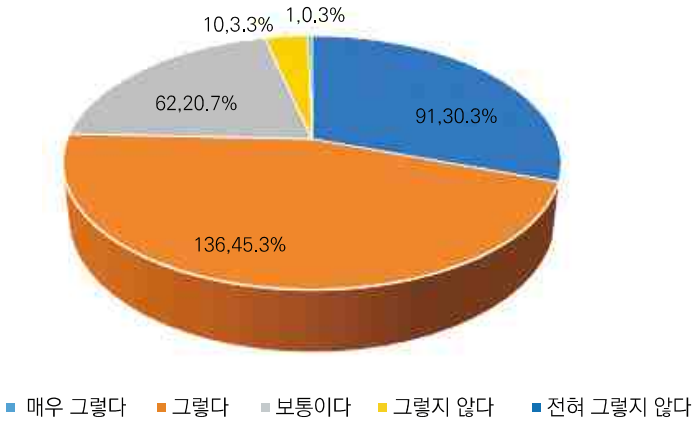
○ 시립미술관 개관 후 원도심 일원은 어떻게 변화되겠는가라는 질문에는 예술적 분위기가 조성되고, 유동인구 및 상업업종이 증가하여 상가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생각이 우세하였음

[표 Ⅳ-2] 시립미술관 개관 이후의 원도심 변화

구 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평균 (5점 척도)
1. 미술 및 문화예술과 관련된 상점이 증가하여 예술적 분위기가 조성될 것이다	65	125	87	16	7	3.75
2. 유동인구의 변화로 일반 상업업종이 증가하여 상가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60	130	83	24	3	3.73
3. 문화예술 업종과 일반 유흥업종 간의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23	65	98	94	20	2.92
4. 현재와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21	67	105	81	26	2.92

○ 원도심 일원을 문화예술로 특화된 지역으로 조성하는 것에 대한 질문에는 '그렇다'가 45.3%, '매우 그렇다' 20.7%로 긍정적인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음

[그림 Ⅳ-9] 원도심 일원을 문화예술 특화지역 조성 의견



○ 그렇다면 문화예술지역으로 특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는 대체로 제시한 의견에 동의가 많았으나, 그 중에도 '타지역과 구별되도록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을 정비해야한다'라는 의견이 4.27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표 Ⅳ-3] 문화예술지역으로 특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

구 분	평균(5점 척도)
1. (가로등 , 벤치 등)을 예술성 있게 변화시켜야 한다	3.92
2. 특정 시간대에는 보행전용 구간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3.83
3. 간판 등 건축물 외관을 특색있게 변화시켜야 한다	3.97
4. 야외문화행사 등을 개최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여야 한다	4.12
5. 문화예술업종이 많이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4.15
6. 문화예술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행하여야 한다	4.09
7. 상품성 높은 축제를 발굴 하고 활성화해 나가야 한다	4.19
8. 타지역과 구별되도록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을 정비하여야 한다	4.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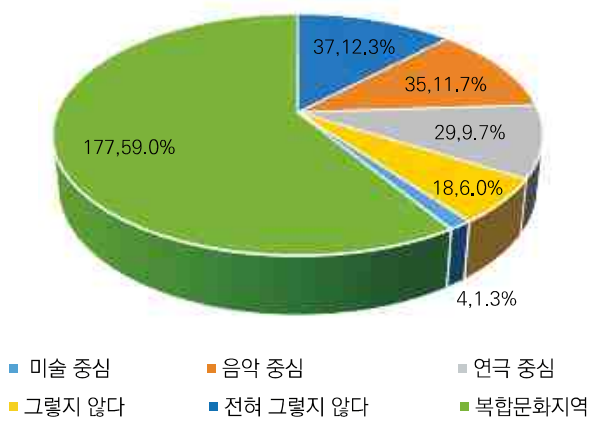
○ 그렇다면 문화예술특화지역 조성을 위해 어떠한 법제도를 활용하면 좋은지에 대한 질문에는 전반적으로 제시된 방법에 대하여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으나, '유도'를 하는 정책에 좀 더 높은 점수를 준 것으로 나타났음

[표 Ⅳ-3] 문화예술지역으로 특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

구 분	평균(5점 척도)
1. 문화예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입지 업종을 구체적으로 정한다 (문화지구, 지구단위계획 등)	3.93
2. 문화예술업종의 유입을 위하여 금전적 지원제도를 활용한다 (업종 개별 지원제도 등)	3.86
3. 다양한 문화예술행사를 적극 추진하여 문화예술 업종의 유입을 유도한다 (특화지역지정 등)	4.03

○ 다음으로 어떤 분야로 특화시키는 것이 좋은가라는 질문에는 특정분야에 집중하지 말고, '복합문화지역'으로 특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59.0%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그림 Ⅳ-10] 특화 분야



4) 설문 종합

○ 설문내용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 첫째, 울산을 대표하는 문화예술지역으로서의 가능성이 높음

- 다양한 문화예술업종 입지 및 시민들의 인식 충분

○ 둘째, 특정 분야보다는 복합형의 문화예술특화지역 개발 필요

- 특정한 분야보다는 다양한 분야가 복합될 수 있는 특화가 필요

○ 셋째, 물리적 환경에 대한 정비 필요

- 다양성을 보여줄 수 있으면서도 정돈된 이미지를 줄 수 있는 환경정비 필요

○ 넷째, 규제보다는 유도 정책 필요

- 기존의 딱딱한 규제 정책 보다는 다양한 문화예술업종이 유입될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음

2. 종사자 인터뷰

○ 원도심 내에서 문화예술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2명을 직접 인터뷰하였으며, 인터뷰 내용은 아래의 표로 정리하였음

○ 현재 상가가 매우 침체되어 있고, 시립미술관과 연계된 사업을 바라며, 문화의 거리를 개선하기를 희망하고 있음

[표 Ⅳ-5] 문화의 거리 종사자 인터뷰

질 문	응답자 1 (복합공간 운영)	응답자 2 (갤러리 운영)
현재 원도심내 상가분위기는 어떠한가?	• 코로나 19 등의 영향으로 전반적으로 침체가 심각함	• 사람들의 왕래가 많지 않음
공연, 전시 등에 대한 분위기는 어떠한가?	• 개인적으로 버스킷 공연 등을 행하고 있으나, 구청에서의 지원 사업에 많이 의존하고 있음 • 그러나, 경쟁이 있어서 다양한 팀이 공연을 하게 되지만, 수준이 일정치 않은 문제가 있음	• 공공에서 주체한 공연 등을 참여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나, 전시 대관료 등으로 마찰이 생기는 경우가 많음 • 전시공간으로서의 공간 대여 비용을 너무 낮게 책정하여 접근하는 경우가 많아 애로가 있음
타 팀과 또는 개인과의 협업 등은 어떠한가?	• 음악 쪽은 협업이 잘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함 • 밴드가 구성되어 있으면 가수는 다른 사람이 올 수도 있고, 외지에서 가수만 오면 지역 내에서 연주팀을 구해서 협업을 하는 경우도 있는 등, 음악적 특성상 협업은 잘 이뤄지고 있으며, 다양한 공간에서도 잘 이뤄지고 있음	• 미술 분야의 특성상 작품 제작에 있어서 작가의 협업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히 전시를 함에 있어서는 잘 없음 • 전시 형태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어 보임
새로운 사업 형태로 어떤게 있을까?	• 음악과 미술의 협업 등 다양한 것을 시도해 볼만함 • 미술관과 네트워크가 되는 공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음	• 시립미술관이 들어서면 작은 갤러리들과 함께 공유하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음
문화의 거리를 개선할 부분은 있는가?	• 현재 너무 많은 조형물과 화단이 조성되어 있어, 안전상 문제가 있음 • 자유롭게 활용할 공간이 많아야 되는데, 보행에도 지장을 초래하고, 야간에 취객이 충돌하여 다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함	• 주제의 통일이 필요해 보임 • 너무 다양한 주제가 있고 조형물의 수준도 달라 조정이 필요해 보임

V
문화특화지역 조성방향

Ⅴ. 문화특화지역 조성방향

1. 계획 조성의 방향

○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문화특화지역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법·제도를 활용할 수 있지만, 규제형 보다는 유도형이 설문조사결과와 시대적 흐름에 비추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 그렇기 때문에 구역계의 뚜렷한 제약이 없고 유도 정책을 펼침에 있어 제도적 제약을 해소해 주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을 활용하여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며, 이미 기초지자체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기에 거기에 보조 맞추는 것이 타당할 것임

○ 계획의 비전은 '다양함을 품은 문화예술도시 울산'으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아름다움을 품은 원도심', '조화로움을 품은 원도심', '미래를 품은 원도심'을 전략으로 하여 사업을 발굴함

[그림 Ⅴ-1] 문화특화지역 조성방향

2. 전략 및 사업

1) 아름다움을 품은 원도심

(1) 문화의거리 정비사업

○ 문화의 거리는 2013년 준공이 되었으며, 초기에는 보도가 확장되어 걷기 편한 도로였으나, 준공 이후 지속적으로 보도에 다양한 시설물이 들어서면서 기존보다 보행공간이 좁아진 상태임

○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걷기 편하면서도 개성 있는 조형물들을 계획적으로 배치하여 매력적인 공간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일본 센다이시 죠젠지 거리의 경우 조형물 설치와 관련하여 계획 수립을 통하여 매년 1개씩 7년간 설치하여 작품의 질을 높이고 조화롭게 한 경우도 참고 가능함

[그림 Ⅴ-2] 문화의 거리(상)와 일본 센다이시 죠젠지 거리(하)

(2) 개성 있는 간판 정비 사업

○ 태화강에서 미술관으로 접근하는 남북축 도로(문화의 거리, 새즈믄해거리)는 사람들에게 중구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가로임

○ 현재 우후죽순 개성 없는 간판들이 많아 이미지 훼손을 많이 가져오고 있기에 여기에 대한 정비가 필요함

○ 예술적 의미를 가미한 간판이 조성될 수 있는 계획적 접근이 필요함

○ 오프트리아 잘츠브르크 게트라이데 거리는 철의 도시를 상징하기 위하여 철제로 간판을 만들도록 하여 지역의 개성을 표현한 사례를 참고할만함

[그림 Ⅴ-3] 문화의 거리(상)와 오스트리아 잘츠브르크 게트라이데 거리(하)

2) 조화로움을 품은 원도심

(1) 갤러리를 품은 공연장

○ 원도심 내에는 다수의 공연장과 복합공간이 존재하고 있으며, 다양한 소규모의 연극 및 음악 공연들이 행해지고 있으며, 특히 음악공연은 카페, 칵테일바 등 다양한 공간에서 연주되고 있음

○ 그러나 미술품의 경우 갤러리에 한정되어 전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일반인에게 노출되는 비율이 현저히 낮음

○ 그렇기에 이러한 음악과 미술품을 함께 같은 공간에서 연주와 전시를 행할 수 있게 하여 공간적 매력을 높이면서도 미술품의 홍보를 적극 할 수 있도록 필요

○ 사례로 '소리나는 전시회(2017)', '소리를 본다(2021)' 등의 전시는 음악과 함께 하고자하는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음

[그림 Ⅴ-4] 문화의 거리 내 공연장(상)과 사례(하)

(소리나는 전시회, 2017.12)

(소리를 본다, 2021.06)

⑵ 미술관 영토 확장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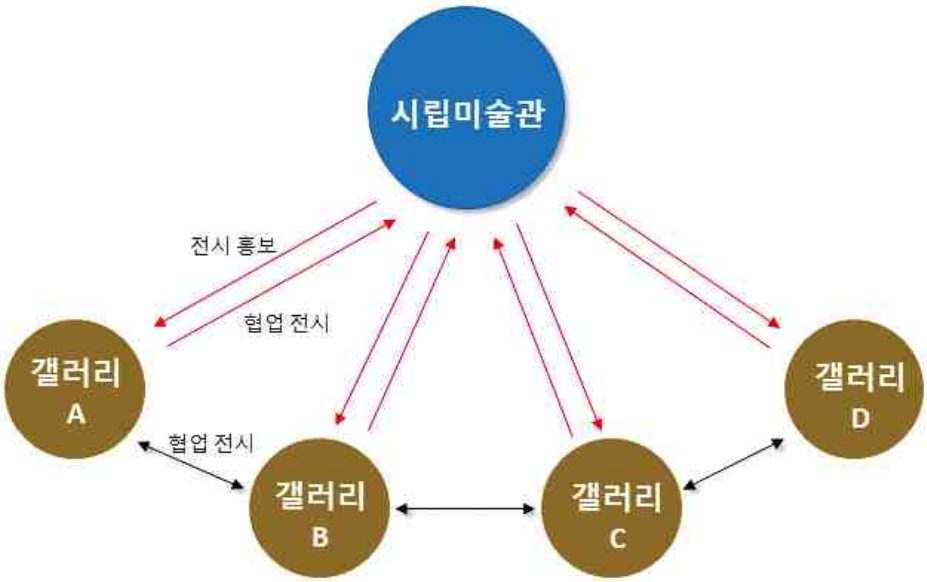
○ 현황에서 보았듯이 원도심 내에는 다수의 갤러리가 존재하고 있으나,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

○ 영세한 규모의 갤러리로서 외부에 들어나는 것도 다소 한계가 있으며, 입지된 곳도 골목 안쪽 등 노출되기 어려운 공간도 꽤 많은 상황임

○ 시립미술관이 조성된 후 시립미술관 방문객들이 주변 갤러리로 유입될 수 있도록 주변 미술관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하며, 또한 소규모 갤러리에서 전시되고 있는 것을 홍보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음

○ 이렇게 함으로써 시립미술관 하나만이 미술관이 아니라, 원도심 내 존재하는 개별 갤러리도 시립미술관 분점의 형태로 인식될 수 있게 운영해 나갈 필요가 있음

[그림 Ⅴ-5] 미술관영토확장사업 개념



3) 미래를 품은 원도심

(1) 미술관 가상공간 조성 사업

○ 시립미술관이 건립되어 원도심 내에서의 상징성은 높아질 것이지만, 미술관의 홍보와 지속적으로 시민들의 접근을 유도하기 위하여 24시간 상시적으로 미술관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함

○ 최근 가상공간(메타버스공간)이 활성화되기 시작하고 있어, 낮시간대에만 방문할 수 있는 공간을 넘어서, 상시적인 접근이 가능하도록 메타버스 공간 안에 울산미술관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 이렇게 함으로써 청년층의 유입도 활발해 질 것이며, 울산시민뿐만 아니라 타지역 시민까지 방문할 수 있어서 홍보효과에 이득이 될 것이며, 이는 곧 향후 울산시립미술관의 방문으로도 이어질 수 있어서 지역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그림 Ⅴ-6] 가상 전시관 사례(상) 및 메타버스 공간 내 전시공간 사례(하)

(제페토 내 현대자동차 체험관)

(제페토 내 구찌 전시 판매장)

(2) 울산 미술품 디지털자산화(NFT) 사업

○ 최근 가상공간이 활성화됨과 동시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예술작품의 디지털자산산업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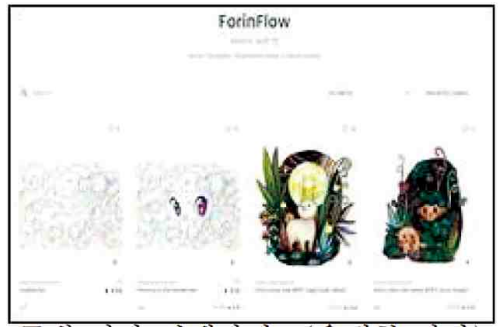
○ 시립미술관 가상전시관 조성과 함께 그 안에 전시할 작품들을 울산 작가들이 만들어 넣는 것도 필요할 것이며, 침체된 미술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체계적인 시스템 안에서 NFT화를 공동으로 시행하는 것이 필요함

○ 개인이 시행할 경우, 홍보와 공신력을 얻기 어렵기 때문에 지속적 생산, 다른 문화이벤트와의 협업 등을 지속시키기 위해 울산미술가협회 등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이렇게 함으로써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 모두에서 원도심 지역을 미술 특성화 지역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임

[그림 V-7] 개인 NFT 사례(상) 및 프로젝트팀 NFT 사례(하)

세계적 NFT 화가 비플



국내 작가 판매사이트(유재철 작가)

DOGE SOUND CLUB MATE

Treasures Club Master

Ⅵ
요약 및 정책제언

Ⅵ.요약 및 정책제언

○ 시민들은 원도심 일원을 문화특화지역으로 조성하는 것에 대하여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인정하고 있으며, 복합적인 형태로 진행되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음

○ 이러한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정책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음

○ 첫째, 문화특화지역 조성을 위한 제도활용적인 측면에서는 규제 중심의 제도가 아닌 유도정책을 펼 수 있는 '지역특화발전특구'를 활용하는 것이 타당함

○ 둘째, 융합형 문화예술특화지역으로 조성될 필요가 있는데, 시민들은 특정분야에 편중되기보다는 다양한 문화가 어우러진 복합형태의 특화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음

○ 셋째, 종합적 계획 수립을 통하여 특화지역으로 조성되기를 희망하고 있는데, 문화예술적 측면에서의 소프트웨어 뿐만 아니라 물리적 환경 정비 및 상징물 등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계획 수립을 통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넷째, 다양한 사업발굴을 통하여 지역을 특화시킬 필요가 있는데, 침체된 문화예술산업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하여 현실 세계 뿐만 아니라 앞으로 펼쳐질 가상세계에 대한 선제적인 도전을 시행하여 울산을 넘어서 사업을 확장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종합적 조성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미래산업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세밀한 계획수립을 통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음

참고자료

참고문헌

- 라도삼, 2010, 문화특화지역 형성요인 및 실태에 관한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양우창 (2009). 문화,예술의 거리 업종 구성에 관한 연구.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15(3), 195-204
- 최효승, 김혜영 (2009). 문화거리조성을 위한 보행환경개선사업이 상업환경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9(8), 237-247
- 문화체육관광부, 2020,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주요현황
- 중소벤처기업부, 2021, 제50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심의 결과 자료
- 울산중구청 내부자료 등

부록

설문지

통계법 33조(비밀의 보호)에 의거 본 조사에서
개인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엄격히 보호됩니다.

ID				

원도심 지역 문화예술관련 인식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재)울산연구원에서는 중구 성남동 일원 원도심 지역에 새롭게 들어서는 울산시립미술관과 함께 이 지역의 문화자원을 더욱 특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정책방향 설정을 위한 민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것을 부담없이 응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하의 응답결과는 무기명으로 처리되며, 오직 연구를 위한 목적으로만 활용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2021년 6월

■ 연구기관 : (재)울산연구원

■ 연구기관 : (재)울산연구원

SQ1. 성별	① 남자	② 여자			
SQ2. 연령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이상
SQ3. 거주지역	① 중구	② 남구	③ 동구	④ 북구	⑤ 울주군
SQ4. 거주 동		동			
SQ5. 직업	① 학생	② 직장인	③ 주부	④ 무직	⑤ 기타
SQ6. 원도심 방문회수	① 매일	② 주1회 이상	③ 월 1회 이상	④ 연 5회 이상	⑤ 아주 가끔

성남동 일원에 대한 인식

문1. 귀하께서는 현재 성남동 일원을 어떠한 지역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현재 상황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아주 아니다
1-1 일반적인 상업시설이 집적한 원도심 지역이다.					
1-2 울산내에서 문화공간으로서의 대표성이 있다.					
1-3 현재 문화적으로 상품성이 있는 공간이다.					
1-4 문화시설과 상업시설이 잘 조화된 공간이다.					

문2. 귀하께서는 성남동 일원에는 어떤 종류의 문화예술업종이 가장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미술(갤러리 등) ② 음악 ③ 연극 ④ 영화 ⑤ 모르겠다. ⑥ 기타( )

문3. 귀하께서는 성남동 일원이 울산을 대표하는 문화예술지역으로 성장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아니다. ⑤ 전혀 아니다.

문4. 성남동 일원에 대한 귀하의 느낌에 대하여 다음의 용어 중 가까운 곳에 체크하여 주십시오.

항 목 (긍정)		2	1	0	-1	-2	항목(부정)
4-1	안전한						위험한
4-2	한적한						복잡한
4-3	쾌적한						불쾌한
4-4	자연적인						인공적인
4-5	편리한						불편한
4-6	정감있는						삭막한
4-7	친근한						어색한
4-8	정돈된						어수선한
4-9	독특한						평범한
4-10	흥미로운						흥미 없는
4-11	인상적인						인상적이지 않은
4-12	젊은						늙은
4-13	다양한						획일적인
4-14	활기찬						침체된
4-15	아름다운						추한
4-16	매력 있는						매력 없는

성남동 일원의 발전 방향

문5. 귀하께서는 원도심 지역(동헌 옆)에 시립미술관이 조성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① 예, 알고 있다. ② 아니오, 몰랐다.

문6. 귀하께서는 시립 미술관이 개관하게 되면 성남동 일원의 변화를 예측해 본 것입니다. 다음의 항목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하십니까?

〈예상되는 변화〉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아주 아니다
6-1 미술 및 문화예술과 관련된 상점이 증가하여 예술적 분위기가 조성될 것이다.					
6-2 유동인구의 변화로 일반 상업업종이 증가하여 상가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6-3 문화예술 업종과 일반 유흥업종간의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6-4 현재와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문7. 귀하께서는 성남동 일원이 울산을 대표하는 문화예술지역으로 성장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아니다. ⑤ 전혀 아니다.

문8. 귀하께서는 성남동 일원을 문화예술이 특화된 지역으로 조성하는 것에 대하여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아니다. ⑤ 전혀 아니다.

문9. 귀하께서는 성남동 일원을 문화예술이 특화된 지역으로 조성시키기 위해서 다음의 항목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하십니까?

필요한 변화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아주 아니다
9-1 가로시설물(가로등, 벤치 등)을 예술성 있게 변화시켜야 한다.					
9-2 특정 시간대에는 보행전용구간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9-3 간판 등 건축물 외관을 특색 있게 변화시켜야 한다.					
9-4 야외문화행사 등을 행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여야 한다.					
9-5 문화예술업종이 많이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9-6 문화예술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행하여야 한다.					
9-7 상품성 높은 축제를 발굴하고 활성화해 나가야 한다.					
9-8 타지역과 구별되도록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을 정비하여야 한다.					

문10. 귀하께서는 성남동 일원을 문화예술이 특화된 지역으로 조성시키기 위해서 법적 제도를 활용한다면 다음의 내용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하십니까?

필요한 변화	매우 동의한다	동의한다	보통이다	동의하지 않는다	아주 동의하지 않는다
10-1 문화예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입지 업종을 구체적으로 정한다.(문화지구, 지구단위계획 등)					
10-2 문화예술업종의 유입을 위하여 금전적 지원제도를 활용한다.(업종 개별 지원제도 등)					
10-3 다양한 문화예술행사를 적극 추진하여 문화예술업종의 유입을 유도한다(특화지역지정 등)					

문11. 귀하께서는 성남동 일원을 문화예술이 특화된 지역으로 조성한다면 어떠한 유형이 중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① 미술을 중심으로.. ② 음악을 중심으로... ③ 연극을 중심으로... ④ 영화를 중심으로...
⑤ 한글을 중심으로.. ⑥ 특정 분야에 집중하지 않고 복합문화지역으로 특화...

문12. 성남동 일원을 문화예술지역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한 귀하의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 )

♣ 설문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